

근대전환기 윤치호의 기독교 사회윤리사상

김권정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I. 머리말

II. 전통적 유교교육과 윤리적 기독교 수용

1. 전통유학 수학과 근대문명 습득
2. 정치적 망명과 기독교 개종과정
3. 기독교사회윤리 수용과 사회적 실천

III. 기독교 사회윤리사상 내용과 성격

1. 비판적 유교이해와 윤리적 기독교
2. 실용적 기독교와 실천윤리
3. 기독교적 청지기론과 시민윤리

IV. 맺음말

• ABSTRACT •

Yun Chi-Ho who was born in the transition period to modern times at the end of nineteenth century had grown as a Confucius intellectual through traditional education of Confucianism. Within the social trend of modernization, he experienced modern civilization by studying in Japan. He had to go on an exile to Shanghai, China along with the frustration of 1884 coup. At that place, he had converted to Christianity on the level of personal ethics. Studying in the United States afterwards, he started accepting the social ethics of Christianity. He established the strategy of reformation movement on the level of Christian social ethics. Afterwards, he had spread out social practices through reformation of system and independence association movement. He had also spread patriotic enlightenment movement to awaken Korean people and raise the skills of national community. In the period of Japanese occupation, he tried to reconstruct the collapsed national community through Christian youth movement, women's movement, press movement and education movement, etc on the level of Christian social ethics.

Yun Chi-Ho attempted to break with Confucianism related view of the world in the transition period to modern age and insisted on Christian faith as a new substitute. He emphasized on the ethical severity on the level of paradigm of life. He systematized the ethical paradigm on this basis. Also, his social ethics originated from the practicality and practice of Christianity. In this aspect, his Christian faith had brought the result of concentrating on this life than afterlife. He recognized Christian ethics as realistic practical ethics. He considered this as providing the social ethics of common good having awareness of mission in the social improvement and reformation. And he realistically accepted the theory of social evolution dealing with the law of the jungle. But he did not accept the 'God of Christianity' as 'God of destiny'. He had overcome this through the stewardship in Christianity. This had become a driving force of having the hope to develop our race without getting frustrated within a hopeless political reality under the oppression of Japan's imperialism.

Key words: the transition period to modern times, social ethic, national community, theory of social evolution, steward ethic

I. 머리말

19세기 말 서구 근대문명의 본격적 유입은 오랫동안 한국사회를 지배해 온 유교적 체제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충격을 주었다. 전근대 시대의 지배적 가치가 낡은 가치로 전락하고, 서양의 근대적 가치가 새로운 대안적 가치로 한국사회에 등장하였다. 그 결과 한국사회에는 근대사회의 정치경제 문화적 요소들이 새롭게 수용되었다. 이 과정에서 수용된 기독교를 통해¹⁾ 유교적 정체성의 한국인들은 근대문명을 읽어내며 그것을 체화시켜나갈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많은 한국인들이 근대이후 정체성을 형성해나갔다.

근대전환기 이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좌옹 윤치호(佐翁 尹致昊, 1865~1945)이다.²⁾ 청소년기 전통적 유학교육을 통해 유교적 윤리 세계관을 수립했던 그는 청년기 해외유학을 통해 근대문명과 함께 기독교신앙을 수용하고 근대적 세계관의 틀을 새롭게 세웠다. 일본, 중국, 미국 유학을 통해 당대 최고의 신학문을 습득한 그는 최초의 한국 미 남감리교 교인으로 미국 남감리교 한국선교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19세기 말 근대국민국가 건설을 지향하던 독립협회 회장으로 대중

1) 박정신, 「기독교와 한국역사」, 『근대한국과 기독교』, 민영사, 1997, 200-207쪽; 김권정, 「한국사회와 기독교의 수용」, 기독교역사문화연구소 엮음, 『한국의 기독교』, 겹보기, 2001, 17-18쪽.

2) 윤치호가 한국 근현대사 속에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역할에 비해 그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보단계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김영희, 『좌옹 윤치호 선생약진』, 기독교조선감리회총리원, 1934; 국사편찬위원회, 『윤치호 일기』(전11권, 1973~1989; 『윤치호 서한집』, 1980; 유영렬, 『개화기 윤치호 연구』, 한길사, 1985; 윤경남 옮김, 『국역 좌옹 윤치호 서한집』, 호산문화사, 1995. 박정신, 「윤치호연구」, 『백산학보』, 백산학회, 1977; 송병기, 『국역 윤치호 일기(개정판)』,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1; 김상태 편역, 『윤치호 일기 1916-1943: 한 지식인의 내면세계를 통해 본 식민지시기』, 역사비평사, 2001; 양현해, 『윤치호와 김교신』, 한울, 2009.

운동을 지도하였고, 일제 침략에 맞서서는 대중의 정치사회적 각성을 이끌었다. 일제 강점기에는 기독교적 윤리를 기반으로 민족교육운동 및 대중문화운동, 그리고 기독교청년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갔다. 또 1919년 3·1운동 참여의 거부, 1930년대 후반 일제에 대한 협력행위 등으로 한국인들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이를 배경으로 여기에서는 유교적 윤리관을 소유한 윤치호가 근대문명과 기독교신앙 수용을 통해 근대 지식인으로 전환하여 기독교적 사회윤리 정체성을 수립하고, 이를 사고와 행동에 일관되게 투영시킨 인물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것은 이런 인물을 통해 근대전환기 유교적 지식인의 기독교 수용과 그 윤리적 성격을 추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근대전환기에 한국사회 구성원들이 서양 근대문명 및 기독교를 무조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받아들이는 삶의 상황에서 어떤 변화와 수용을 경험했는지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II. 전통적 유교교육과 윤리적 기독교 수용

1. 전통유학 수학과 근대문명 습득

좌옹 윤치호는 1865년 충남 아산에서 윤영렬(尹雄烈)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당시 그의 집안은 고조 이하 3대에 걸쳐 벼슬을 못했고, 또 그의 아버지가 무관(武官)이라는 점에서 보면 전통적 양반 명문가문으로 내세우기 부족함이 많았다. 그러나 윤치호의 할아버지 때에 와서 가세가 일어나고 아버지가 무관으로서 역량을 인정받게 됨에 따라 윤치호가 자랄 무렵 가문을 일으키고자 하는 의지적 분위기가 집안에 크게 조성되었다.³⁾

3) 그의 가문에 대해서는 유영렬, 위의 책, 15-17쪽을 참조할 것.

당대 모든 양반집 아이들처럼 윤치호는 어린 시절 전통적 유학(儒學)을 공부하고 과거제를 통해 장차 높은 관료로 출세하여 가문을 일으킬 ‘입신양명(立身揚名)’을 꿈꾸게 되었다. 5세 때부터는 개인 선생을 모시고 글공부를 시작하였다. 그의 총명과 선생의 열정적 지도로 공부에 진보가 나타났다. 8세 되던 해에는 어린 윤치호가 ‘충감감사나 전라감사’가 되려는 포부를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집안 어른들에 의해 주입된 소원이었으나, 그만큼 입신양명을 통한 출세에 대한 집념이 어려서부터 강했다. 9세에 서울 승동 집으로 이주한 그는 한학자 김정언(金正言)의 집으로 들어가 공부하였다. 13세에 이르러서는 유학의 문리(文理)가 트고, 문법에 통달하게 되면서 당시 어려운 한문 문헌도 거침없이 읽는 수준이 되었다.⁴⁾

특별히 그의 교육에는 아버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당시 무관(武官)이 하대(下待)받던 사회풍토에서, 아버지 윤응렬은 윤치호를 무관이 아닌 고위 문관(文官)으로 출세시키고자 하였다.⁵⁾ 그도 아버지의 뜻을 어기지 않고 고위 관리가 되려는 포부를 가지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는 ‘과거제(科擧制)’를 통해 관리가 되려는 코스를 밟지 않았다. 그것은 1880년 전후로 펼쳐진 시대상황 변화와 아버지의 개화지향 영향 때문이었다. 윤응렬은 서구문물 수입과 근대적 제도개혁을 위해 조선정부가 관료들을 일본에 수신사(修信使)로 파견할 때 그 일원이 되어 일본을 다녀왔다.⁶⁾ 일본 발전상을 목격한 그의 아버지는 조선도 근대적 방향으로 가야하고, 그런 의미에서 아들 윤치호도 근대 신학문을 통해 진로를 개척해야 한다는 생각을 확신하게 되었다.

4) 김영희, 위의 책, 23-25쪽.

5) 김영희, 위의 책, 27쪽.

6) 유영렬, 위의 책, 20-22쪽.

이렇게 해서 윤치호는 아버지의 주선으로 개화인물인 어윤중(魚允中)의 문하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다. 전통적 출세방식이 아니라 신학문 습득과 개화흐름에 기초한 진로를 모색하게 된 것이다. 1881년 그는 서구문물 시찰과 수용을 위해 일본에 파견된 신사유람단(紳士遊覽團)에 어윤중의 수행원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시찰기간이 끝났으나, 그는 귀국하지 않고 그대로 일본에 남았다. 얼마 안 있어 그는 동인사(同人社)에 입학하였다. 그는 일본 방문을 근대 문명의 습득을 위한 유학(留學)의 기회로 삼았던 것이다.⁷⁾

일본에서 윤치호는 기독교를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다. 당시 동인사를 설립한 나카무라(中村正直)가 기독교의 열렬한 신봉자였고, 그를 통해, 또 서적을 통해 기독교를 접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에게 기독교는 아직 관심 밖이었다. 출세를 위한 신학문 습득이 우선이었기 때문이다. 나카무라도 그에게 기독교신앙을 강요하지 않았다. 일본에서 윤치호는 급진개화파인 김옥균, 서광범, 박영효 등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 또 일본 정치가, 사상가, 교육가 등을 비롯해 구미 외교사절단과 지식인들과도 폭넓은 교류를 가졌다.⁸⁾

이 기간 그는 근대화되는 일본 발전상을 체험하고 조선의 근대적 개혁 방향을 구상하기도 하였다. 서구적 정치 행정 시스템의 도입과 군주 주도의 안민(安民)의 정치이상 실현을 큰 틀로 하는 ‘내정개혁론’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 목적은 어디까지나 여전히 ‘서구화’에 의한 유교적 정치 실현에 있었다.⁹⁾ 일본에서 약 2년 동안 체류했던 그는 1883년 4월경 초대 주한미국공사 푸트의 통역으로 국내에 귀국하였다. 그는 고종과 미국 공사관, 그리고 개화세력 사이에서 교량 역할을 하며 제도개혁에 노력하였다.

7) 이광린, 「유길준의 개화사상」, 『한국개화사상연구』, 일조각, 1981, 49-50쪽.

8) 유영렬, 위의 책, 23-24쪽.

9) 『윤치호일기』, 1884년 1월 18일.

2. 정치적 망명과 기독교 개종과정

미국 공사관 통역관으로 귀국한 윤치호는 서구 근대문명을 직접 배우기 위한 미국유학을 꿈꾸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1884년 12월 급진 개화파세력에 의해 갑신정변(甲申政變)이 일어났다.¹⁰⁾ 더 이상 제도개혁이 늦춰질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쿠데타를 감행한 것이다. 그러나 갑신정부는 '3일' 만에 청나라 군대의 무력개입으로 좌절되고 말았다. 급진 개화파세력에 대한 보수세력의 대대적 탄압이 시작되었다. 다수가 해외로 망명을 떠났고, 일부는 살해당하기도 하였다.

윤치호 부자도 안전할 수가 없었다. 직접적으로 적극 가담한 것은 아니었으나, 평소 급진개화파세력과 가까웠고, 아버지의 경우에는 갑신정부 형조판서에 이름이 올랐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이 그는 보수세력의 탄압을 피해 미국 푸트공사가 써준 소개장을 들고 중국 상해로 건너갔다.¹¹⁾ 이렇게 그의 뜻하지 않은 정치적 망명, 기약 없는 망명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망명이 절망만을 준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인생의 전환점이 될 만한 큰 기회를 맞았기 때문이다. 그에게 새로운 배움의 기회가 온 것이다. 미국 푸트공사의 추천으로 1885년 상해에 도착한 윤치호는 미국 남감리회 소속의 중서서원(中西書院, Anglo Chinese College)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다.¹²⁾ 기독교계 학교였으나, 그는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 학교 예배에도 참석했으나 그에게는 형식적인 것이었다. 여전히 그의 관심은 정치 쪽에 있었다. 정치 관계 서적을 주로 읽었다. 공부하면서도 그는 국내 정세변화에 주목하고 그에게 희망적 소식이 오기를 기다렸으나, 전해지는 소식은 우울한 것이 대부분이었다.¹³⁾ 특히 해

10) 강만길, 『한국근대사』, 창작과 비평사, 1984, 193-195쪽

11) 『윤치호일기』, 1884년 12월 7일.

12) 박정신, 「윤치호연구」, 『백산학보』 제23호, 백산학회, 1977, 357쪽.

13) 이덕주, 『한국그리스도인의 개종이야기』, 전망사, 1990, 142쪽.

외에 망명하고 있는 개화와 인물에 대한 우울한 소식만 들려왔고, 지도적 역할을 했던 김옥균이 자객에 의해 살해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도 듣게 되었다.

그에게는 너무도 절망적 나날의 연속이었다. 이 무렵 그는 밤새워 술을 마시거나 종종 흥등가 여인들과 동침하는 경우도 찾아졌다. 어려서 꿈꿔 왔던 정치적 야망이 꺾인 현실에서 그는 좌절을 잊기 위해 방황하며 타락한 생활을 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에게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¹⁴⁾ 심리적 방황과 함께 건강도 자연스럽게 나빠졌다. 그에게는 어떤 돌파구가 필요했다. 그 속에서 그가 발견한 것은 자신의 방황과 대조적으로 중서서원 알렌 및 보넬 교수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성실하고 진실된 삶이었다.¹⁵⁾ 아울러 교과목으로 배웠던 성경과 기독교 교리에 대해 들어 알게 된 지식도 자신의 그릇된 삶을 비추는 거울이 되었다.

1886년 초 그는 자신의 절망스러운 방황에 대해 깊게 반성하기 시작했다. 스스로 그는 ‘심약(心約)’이란 나름대로 ‘윤리적’ 지침을 만들고 절제의 생활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그가 배운 유교적 방식에서 나온 대응이었다.¹⁶⁾ 그러나 그의 ‘심약’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 윤리적 실천을 위한 의지만으로는 마음의 결심을 지키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유교적 윤리에서 비롯된 ‘심약’이란 지침보다 더 힘든 정신적 고뇌가 그를 지배하였다. 그가 들었던 기독교의 ‘상제님’께도 기도도 했으나, 해결되지 않았다. 기독교에 대한 그의 관심은 여전히 유교의 윤리적 차원에 그치고 있었다. 기독교는 유교적 윤리 차원에서 머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초월한 진리 체계로 발전되어야 했다. 그의 기독교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14) 유영렬, 위의 책, 61쪽.

15) 민경배, 「초기 윤치호의 기독교신앙과 개화사상」, 『동방학지』 19집, 1978, 167쪽.

16) 『윤치호일기』, 1886년 1월 4일-5월 10일까지.

이 무렵, 방황하는 그를 집중하여 주목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중서서원의 보넬 교수였다. 그는 정신적 고뇌를 이기려는 윤치호의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었다. 1887년 3월 9일 보넬 교수는 윤치호에게 기독교에 대한 생각을 질문하였다. 이에 그는 보넬 교수에게 '상해에서 와서 상제 이름을 들은 이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 달라고 했고, 기독교를 섬기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 시시때때로 의심하는 마음이 가득 차는 바람에 어쩔 줄을 모르겠다'는 마음을 털어놓았다.¹⁷⁾ 그러자 보넬 교수는 그에게 세례받기를 권유하면서, 세례가 올바르게 살려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활을 붙잡아주는 신앙심을 길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 말을 듣고 큰 용기를 갖게 된 이후 윤치호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진지한 생각과 결단을 하기에 이르렀다.

드디어 1887년 3월 23일 그는 보넬 교수에게 자신의 기독교신앙이 담긴 '신앙고백서'를 제출하였다. 여기에서 그는 현실적 삶에서 느끼는 개인의 윤리 한계를 유교적 윤리로 극복할 수 없었고, '상제님'에게서 그 해결책을 찾기로 결심하였다고 표현하였다. 이와 함께 죽음 이후 세계도 준비한다는 생각에서 세례 받기로 결단했다는 점을 분명하게 서술하였다. 즉 그는 개인적 차원에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 구원의 종교로 믿었고, 자기 영혼의 구원과 생활의 개선을 위한 종교로 수용하고자 하였다.

1887년 4월 3일 그는 보넬 교수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이 날 그가 쓴 『일기』에서는 "오늘로부터 주님을 믿고 성교(기독교-필자 주)를 받들기로 굳게 결심했다, 가히 일생에 있어 제일 큰 날이라 하겠다"고 기록하였다.¹⁸⁾ 이로써 상해에 도착하여 중서서원에서 공부를 시작한 지 1년 3개월 만에 그는 기독교로 온전히 개종하였다. 물론 일본 유학까지 합치면 무려

17) 『윤치호일기』, 1887년 3월 9일.

18) 『윤치호일기』, 1887년 4월 3일.

6년 만의 일이었다. 마침내 오랜 사색과 번민, 그리고 결단이란 탐구의 과정을 거치며 윤치호는 내면에서부터 기독교신앙을 받아들이는 기독교인이 되었다.

3. 기독교사회윤리 수용과 사회적 실천

윤치호는 3년 6개월의 중국 유학을 마치고, 꿈에 그리던 미국유학을 가게 되었다. 그 곳은 미국 밴더빌트(Vanderbilt) 대학교였다.¹⁹⁾ 중서서원 보넬 교수, 알렌 박사의 알선과 미국 남감리교회 후원이 결정적인 힘이 되었다. 1888년 11월 목적지인 미국 내쉬빌에 있는 밴더빌트 대학교에 도착했는데, 그의 나이 24세였다. 밴더빌트 대학교에서 각고의 노력 끝에 우수한 학업성적을 기록한 그는 졸업한 뒤 본넬 교수 및 알렌 박사와 상의하여 에모리(Emory) 대학교에 다시 입학하였다.²⁰⁾ 이곳에서 그는 학업에 충실하며 교내 행사와 서클활동에 적극 참여하였고, 교과를 초월하여 각종 종교집회에 참가하는 활동을 펼쳤다. 특히 많은 교회를 방문하여 한국선교에 대해 관심과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연설을 자주하였다.

5년 동안 미국 사회를 체험하면서 그는 미국이 당대 ‘최고 문명국’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미국 사회가 민주주의와 과학문명에 기초한 성숙한 근대사회라는 긍정적 인식을 갖게 되었다. 반면에 약육강식이 판을 치는 국제현실에서 미국의 강대국 논리문제, 미국 사회 내의 심각한 인종차별의 문제 등의 겪으면서 미국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를 동시에 보기도 하였다.²¹⁾

그러나 무엇보다 이 시기 그가 발견한 것은 사회적이며 실용적인 기독교

19) 『윤치호일기』, 1888년 9월 24일, 8월 30일, 9월 4일.

20) 『윤치호일기』, 1890년 8월 13일.

21) 유영렬, 위의 책, 75-82쪽.

교윤리였다. 중국 상해 중서서원 시절, 깊은 방황 속에서 기독교 신앙을 개인적 윤리차원에서 수용했던 그는 미국유학 시절, 미국 사회의 진정한 힘, 미국인들을 떠받치고 있는 것이 기독교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기독교가 단순히 문명부강의 원동력일 뿐 아니라 인간을 자유하게 하고 민주적인 정부를 탄생시킨 미국 민주주의의 창조력으로 보았던 것이다.²²⁾ 그러면서 그는 미국의 많은 지성인들이 비록 종교 없이도 도덕적으로 선하다고 자부하기도 하나, 미국인들 대부분이 기독교 복음에서 도덕과 윤리의 근원을 찾고 있다는 점에서 기독교 복음이 미국인들의 정신적 기반이 되고 있다고 파악하였다.

이런 경험을 통해 그는 사회적 차원에서 기독교가 사회개선에 사명의식을 가지는 공익적인 사회윤리라는 인식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는 평소 국가와 민족에 대한 관심과 발전구상을 모색하던 윤치호가 기독교를 개인적 윤리차원을 넘어 사회윤리 차원으로 나아가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국가와 민족, 사회개혁의 방략과 방향을 설정하는 출발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윤치호는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영혼의 구원을 받음으로써 도덕적 품격과 정직한 인간 형성이 가능하다고 믿고 기독교를 인간 개선의 윤리로 수용했다. 동시에 기독교를 서구의 문명부강과 자유민주주의를 창출시킨 사회변혁의 윤리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는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에게 귀의함으로써, 서양 문화가 지닌 힘의 근원으로 파악한 기독교를 실천적인 종교로 수용하게 되었다. 이것은 그가 기독교가 가진 교리적 ‘우월성’이 아닌 윤리적 삶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기독교 ‘유용성’의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중국과 미국유학 및 체험을 통해 기독교적 사회윤리를 수용한 윤치호가 1895년 국내에 귀국하였다. 당시 국내 상황은 매우 어려움에 있었다.

22) 『윤치호일기』, 1892년 2월 10일.

청일전쟁으로 국가 자주권이 흔들리고, 제도적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대상이었다. 1894년 갑오개혁이 시작되었다. 힘든 국내 사정에 귀국한 그는 기독교 사회윤리를 확산하며 기독교 선교와 국가의 제도개혁 및 대중운동 차원에서 이를 실천적으로 펼쳐나갔다.²³⁾ 갑오개혁운동에서는 제도 개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아관파천으로 갑오개혁이 실패하게 된 이후, 전개된 독립협회 운동에서 그는 자주·자강·민권운동을 대중화하는 데 지도적 역할을 하여, 민중적 정치운동의 발판을 만들었다.²⁴⁾ 이는 1900년대 일제 침략에 맞서 애국계몽운동에서 그대로 이어졌다. 1900년대 중반 일본의 침략에 맞서 대중계몽을 통해 대중의 각성과 힘을 양성하지는 애국계몽운동 단체들이 차례로 설립되었다. 대한자강회 및 대한협회는 대표적인 단체로, 양 단체의 회장을 그가 이어서 맡아 국권회복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²⁵⁾ 이와 함께 그는 한영서원(韓英書院)과 같은 학교를 건립하여 기독교적 교육의 실시를 통해 근대 시민윤리 교육을 펼쳐나갔다.²⁶⁾

그의 활동은 1910년 한국이 일제의 강점되면서 큰 위기를 맞이하였다. 윤치호는 1911년 기독교 민족주의 세력의 제거를 목적으로 일제가 조작한 ‘105인 사건’의 주요한 탄압 인물이었다. 그는 억울하게 수년간 투옥 생활을 해야만 했다. 이 사건은 그에게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주었고, 1916년 석방된 이후 해방될 때까지 정치적 부분과 일정한 거리를 두게 만드는 결정적 배경이 되었다.²⁷⁾ 이런 점은 그에게 직접적인 정치행동을 기대하던 많은 이들에게 배신감을 주기도 하였다. 이어 3·1운동 당시

23) 이에 대해서는 김명배, 「한말 기독교 사회, 민족운동의 신학적 배경과 그 성격에 관한 연구」, 『송실사학』 21, 송실사학회, 2008 참조.

24) 유영렬, 114-137쪽.

25) 신용하, 「신민회의 창건과 국권회복운동」, 『한국학보』 제8집, 일지사, 1977, 35-47쪽.

26) 김영희, 위의 책, 209쪽.

27) 윤경로, 「백오인사건의 일연구」, 『한성사학』, 한성대 역사학회, 1983, 31쪽.

운동 참여 거부 및 일제 후반 일제에 대한 협력행위 등으로 많은 한국인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배경이 되었다.

그러나 그는 역경에 좌절하지 않았고, 이를 겪으면서도, 비록 일본제국 주위의 식민지배 아래에 있더라도, 기독교 사회윤리에 기초한 사회적 실천운동만이 민족공동체를 근대적인 지향의 공공(公共) 사회로 변화시킬 수 있는 본질적 운동이라는 확신을 포기하지 않았다. 아무리 식민지 지배 체제라고 하더라도 근본적 변혁운동을 도외시킬 수는 없는 것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식민지 상황이란 제한된 공간 안에서 그의 사회적 실천은 계속되었다. 그는 기독교청년회(YMCA)운동을 이끌며 청년들의 시민사회윤리의 각성과 현실변혁의식의 고취 등을 이끌었다.²⁸⁾ 이외에도 그는 기독교계 학교운동 및 사회언론운동, 농촌운동, 기독교연합운동뿐만 아니라 사회적 대중계몽운동 및 민족문화운동 등을 전개하였다.²⁹⁾ 이를 통해 그는 사회윤리차원에서 한국사회의 근대적 개혁과 변화를 도모하는 사회적 실천을 지속하였다.

III. 기독교 사회윤리사상 내용과 성격

1. 비판적 유교이해와 윤리적 기독교

일본 유학 시 기독교를 접했던 윤치호는 중국 상해 중서서원에서 근대 학문과 기독교 성경을 규칙적으로 공부하고, 세례를 통해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고 이를 확신하게 되었다. 다음은 신앙고백서에서 밝히고 있는 부분이다.³⁰⁾

28) 전택부, 『한국기독교청년회운동사』, 정음사, 978, 62-65쪽, 79-83쪽 참조.

29) 김권정, 「1920-30년대 한국기독교인들의 민족운동 연구」, 숭실대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1 참조.

저는 상해에 오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 들은 바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불신자(不信者) 나라에서 태어나 불신자 사회에서 자라나 불신자 문자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거룩한 종교를 알게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죄를 범했습니다. 그 이유는, 정욕과 만족을 고귀한 신앙생활보다 더 좋아했고 인생을 짧은 것으로 생각해서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즐기는 것이 도리라고 여겼으며 ‘건강한 자에겐 의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였으나, 저는 스스로 의롭다 여겨 어떤 하자도 없다고 여겼습니다. 의롭다 여기면 여길수록 더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윤치호는 한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 안에 ‘죄악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가장 먼저 인식하였다. 사람 본성이 악하다는 개념은 그가 현실주의적인 유교적 세계관에서 발견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서 내세(來世)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된 그에게 기독교적 세계관은 성선설(性善說)과 현실을 강조하는 유교적 세계관과 분명히 달랐다. 그는 전통적 유교와 새롭게 대두된 기독교를 치밀하게 비교 분석해보았다. 특별히 세례를 받기 전 그는 사서(四書)를 다시 검토한 후에 마침내 결론을 내렸다. 유교에서 건전한 도덕률을 교육하고 있으나 사람에게 그러한 도덕률을 강제할 어떤 절대적 ‘구속력’도 갖고 있지 못하다고 파악하였다.³⁰⁾ 그리하여 그는 무기력하고 통제 불가능한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대신에 절대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에 의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렇게 사람의 본성이 악하다는 개념의 수용은 사람의 선행에 대해 당위성이 결여된 유교의 한계를 지적함을 통해 기독교적 신관(神觀)을 받아

30) 윤치호, 「윤치호의 신앙고백」, 이덕주 · 조이제 엮음, 『한국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고백』, 1997, 26쪽.

31) 안신, 「좌옹 윤치호의 종교경험과 종교론」, 『한국기독교와 역사』 27, 한국기독교역사학회, 2007, 53쪽.

들이는 계기가 되었다. 방탕한 생활을 하더라도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는 인식이 유교적 관습적 윤리에서 보면 매우 보편적 일들에 불과했으나, 그는 사람 선행에 대한 유교의 절대적 당위성 결여가 그에게 더욱 방탕한 길로 가게 했다는 강력한 자의식(自意識)을 갖게 되었다.³²⁾

이어 그는 하나님 이해를 통해 절대적 선(善)으로 모든 사람들을 의(義)에 따라 심판하신다는 기독교적 신관(神觀)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즉 윤치호에게 하나님은 절대적 선을 갖고 그 기준에 따라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심판자인 동시에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어 도덕적이고 윤리적 삶을 살게 하는 힘이였다.³³⁾ 하나님이란 존재는 그에게 윤리적 당위성을 제공함과 동시에 윤리적 성취도를 높여주는 근본이였다. 그가 생각하던 사람의 완전함은 기독교적 신의 은총이란 창의적 개념에 머무르지 않고 신앙적 종교성을 통해 표출되는 윤리적 완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였다.

이렇게 전통적 유교에 대한 비판을 통해 그는 기독교적 윤리관을 강화시켜나갔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의 비판이 유교의 원리나 가치에 대한 비판보다 유교가 지닌 보편적 가치를 현실에서 어떻게 실현시켰는가에 대한 현실 적용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유교의 이상 자체에 대한 본질적 비판보다 당시 유교적 이상이 한국사회에 제대로 구현되지 못한 데 대한 현실적이며 기능적인 불만에서 비롯된 공격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었다.³⁴⁾ 이는 그가 유교의 대체자로서 기독교를 설정하게 된 것과 깊은 관계가 있었다. 예컨대 공자와 예수의 가르침에서 공통적으로 ‘중용’의 미덕과 ‘황금률’의 윤리적 덕목이 강조된다는

32) 『윤치호일기』, 1932년 1월 14일.

33) 노재신, 「윤치호의 기독교신앙과 현실 인식」, 목원대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20~21쪽.

34) 유영렬, 위의 책, 174-180쪽.

점을 강조하면서도 그는 궁극적으로 유교적 전통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힘과 권위를 기독교 신앙에서 찾았다는 점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전통적 유교의 ‘윤리’ 패러다임을 기독교 이해에 그대로 적용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윤치호는 유교가 시대적 상황에 맞지 않는 부정적인 내용이나 성격을 비난함으로써 유교와의 현상적 ‘단절’을 시도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전통적인 유교 가치 인식의 틀인 ‘윤리’ 패러다임을 자신의 사고방식에서 그대로 지속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월등하게 앞선 근대 문명의 힘을 앞세우고 몰려오는 서구적 기독교의 힘 앞에 이를 받아들이면서도 윤치호는 유교의 윤리 패러다임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유교를 통해 성취하고자 했던 그 목표를 기독교를 통해 보완하고 이를 이루고자 한 것이다.

이처럼 윤치호는 근대전환기 유교적 세계관에 대해 현상적으로 ‘비판’을 시도하면서도, 새로운 대체자로 기독교 복음에 기반한 윤리적 기독교 통해를 주장하였다. 삶의 인식 틀 차원에서 윤리적 심각성을 인식한 그는 전통적 유교세계관에서 결여된 하나님 존재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기독교적 윤리 패러다임을 강조하였다.

2. 실용적 기독교와 실천윤리

윤치호의 기독교 사회윤리는 기독교를 철저하게 실용적으로 이해하는 측면에서 형성되었고, 출발하였다. 그는 도그마적인 철학이나 지적인 종교를 배격하고, ‘옳고 진실하다고 알고 있는 것을 행할 수 있게 하는 산도덕 혹은 정신적인 힘’을 추구했다.³⁵⁾ 이런 점에서 윤치호는 생활 속에서 실용된 기독교가 거대한 힘이라고 하여, 지극히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종교로서 기독교윤리를 수용하였다.

35) 『윤치호일기』, 1890년 5월 19일.

이 같은 인식은 실용적 차원에서 기독교 전통에만 머무르지 않고 일반적인 개념으로까지 확대되어 나타났다. 그는 종교에 대해 ‘생활에서의 악을 제거하며 현생에서 복락을 사후 세계로 확대하고 연장하려는 인간의 노력이며 바램’³⁶⁾이라고 보았다. 즉 종교를 계시적이며 신학적 존재론을 사용해 그 본질을 규정하기보다 경험적이며 윤리적이고 동시에 기능적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런 이해를 토대로 그는 기독교의 국수주의나 배타주의적 태도를 극복할 수 있었고, 자신의 신앙인 기독교를 비롯한 다양한 종교들 사이의 유사점을 이해하는 성숙한 신앙태도를 보였다.³⁷⁾ 그는 다양한 종교의 원리를 지적하면서도 신앙적으로 상대주의나 회의주의에 빠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종교가 일상생활의 문제들과 밀접하면서도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다. 다양한 종교들의 가치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종교가 사회일반과 종교공동체의 요구에서 벗어나 현실과 유리된 채 폐해나 부조리를 보게 되면 그는 가차 없이 비판하였다. 이는 기독교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니었다.³⁸⁾ 그는 기독교인의 타종교인들에 대한 배려나 서양선교사들의 우월의식과 오만함을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또한 그는 기독교 사회윤리 차원에서 철저한 실천을 강조하였다. 그는 사상가나 이론가라기보다 실천인인 동시에 행동인이었다. 그는 기독교인이 된 것도 기독교가 실천종교, 즉 일하는 종교라는 인식 때문이었다고 하였다. 기독교는 신앙적 실천주의 성향을 강하게 나타내게 되었는데, 실천없는 종교는 차라리 무종교보다 나쁘다고 보았다. 그것은 “삶 속에서 실용된 기독교야말로 하나의 능력으로서 그 앞에서 아무것도 대적될 수 없다”고 단정으로까지 표현되었다. 다음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

36) 안신, 『좌옹 윤치호의 종교경험과 종교론』, 60쪽.

37) 『윤치호일기』, 1920년 9월 4일.

38) 『윤치호일기』, 1933년 11월 6일.

고 있다.³⁹⁾

모든 종교 중에서 나는 기독교를 선택한다. 그것은 일하기 때문이다. 기독교 중에서 나는 개신교를 선택한다. 그것이 일하기 때문이다. 개신교의 지파 중에서 나는 삼위일체론을 선택한다. 그것이 일하기 때문이다. 삼위일체론 중에서 나는 감리교를 선택한다. 그것이 일하기 때문이다.

그의 언급은 그가 기독교를 적극적이고 실천지향적인 윤리로 이해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그는 말로써가 아니라 일상의 생활에서 전도되어야 한다고 보았고, 또 가식적이거나 도덕주의나 경건주의를 비판적으로 바라보았다. 그래서 그는 실천적 행동 없이 신앙심이 있는 체하는 것만큼 가식적이거나 거짓된 행위가 없다고 보았다. 이는 그의 실천윤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윤치호는 유교가 당시 현실에서 무용하거나 무력한 것은 실천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비판하였다. 유교의 실천력 부재현상이 허례허식적인 효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파악하였다. 이 때문에 유교의 아름다운 가치가 형식과 가식에 둘러싸여 진정한 가치를 실천할 수 없는 무력하고 무용한 윤리로 변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차원에서 그는 유교를 비롯한 전통적인 종교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한국인들의 본성 가운데 인의, 충효, 온유, 검소 등의 윤리가 깊이 자리 잡혀 있다고 보았다. 특별히 사랑의 감정적 요소인 동정심이 풍부하게 한국인의 본성 안에 깊이 내재되어 있다고 주장했다.⁴⁰⁾ 그런데 한국인들에게는 좋은 가치와 윤리가 있지만 그것을 실현하려는 역행(力行)이 부족하다는 약점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39) 『윤치호일기』, 1894년 1월 1일.

40) 윤치호, 「종교와 민족성」, 『청년』 제7권 7호, 1929년 9월, 3-4쪽.

그가 기독교에서 발견한 것이 바로 그 보편적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실천적 힘이었다. 한국인이 기독교에서 배워야 할 윤리는 ‘사랑’을 넘어 사랑의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강한 ‘의지력’이었다.⁴¹⁾ 기독교공동체가 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은 정직과 신용과 같은 의지의 윤리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고, 이렇게 변화시킬 때 종교가 죽은 종교가 아니라 생기를 진작시키는 종교가 될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기독교의 힘은 논쟁 속 보다 행동 속에서, 즉 개인과 민족의 삶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도덕적인 힘의 표출 속에서 출발한다고 인식하였다.

따라서 윤치호는 기독교 윤리를 철저하게 현실적인 실천윤리로 인식하였다. 이는 사회적 개선에 사명의식을 가지는 공익적 사회윤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현실변혁에 크게 기여하는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렇게 실용성과 실천성에 맞추어진 그의 사회적 윤리관은 그의 신앙 중심을 자연스럽게 내세보다 현세에 집중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배경이 되었다.

3. 기독교적 청지기론과 시민윤리

미국 유학시절 그는 새롭게 수용한 기독교 신앙의 의미를 사회적으로 발견하였다. 그는 미국의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신조와 실천을 집중하여 관찰하였다. 서재필과 이승만처럼 그도 역시 서구 근대문명, 특히 미국문명화의 본질을 기독교에서 찾았다. 문명화와 종교를 동일시한 것은 유교와 문명화를 사실상 동의어로 이해하던 당시 지식인들의 인식 틀 속에서 보면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윤치호 역시 이 같은 인식의 태도를 그대로 보여준다. 한국의 사회와 문화에 실망한 그는 유교가 오류였다고 결론지었다. 반면에 기독교가 진리라면 기독교는 한국인들을 더욱 강하

41) 윤치호, 「종교와 민족성」, 5쪽.

고 당당하게 회복시킬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⁴²⁾ 즉 그는 종교와 문명화를 별개로 본 것이 아니라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로 인식한 것이다.

그러나 과연 기독교가 한국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현실 문제에 부딪혀 윤치호는 사회진화론이란 틀 속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그가 활동하던 시기는 ‘약육강식’(弱肉強食)·‘적자생존’(適者生存)란 정글의 법칙을 정당화해주던 사회진화론(社會進化論)이 팽배해 있었다.⁴³⁾ 현실적으로 사회진화론은 서구제국주의의 무력적 침략을 통한 식민지 획득과 지배를 약육강식으로 논리로 합리화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었다. 그는 냉혹한 약육강식의 사회진화론과 윤리적 명령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질서를 포함한 기독교 신앙, 이 둘 사이의 모순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에 대해 오랜 번민 끝에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⁴⁴⁾

어떤 민족이나 인종을 다른 민족이나 인종이 정복하는 데 정복당한 이들이 도덕, 종교, 그리고 지식 면에서 더 나아, 그래서 정복자보다 더 정의롭다면 “힘이 정의”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 그러나 우리는 더 강한 민족이 도덕, 종교, 정치에 있어서 더 약한 인종보다 항상 더 우수하고 덜 타락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힘이 정의를 이긴 듯한 것도 사실은 상대적으로 더 정의롭지 못한 인종을 상대적으로 더 정의로운 인종이 승리했다는 것을 보게 된다. 그래서 결국 인종 사이의 관계에서는 물론 이와 다른 예외가 있겠으나 정의가 힘이다.

윤치호는 사회진화론적 개념에서 사람들이 그 민족에 대해 갖는 권리

42) 『윤치호일기』, 1889년 3월 30일.

43) 허동현, 「1880년대 개화와 인사들의 사회진화론 수용양태 비교 연구」, 『사총』 55, 역사학연구회, 2002, 54쪽.

44) 『윤치호일기』, 1892년 11월 20일.

를 빼앗길 수 있다는 부분을 ‘현실적’으로 인정하였다. 이어 동시에 악(惡)의 인격적인 기원과 섭리에 대한 개념들로부터 그는 그 사람들이 민족 생존에 대해 ‘도덕적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점에서 보면 제국주의 침략은 침략자의 죄악만큼 침략 당한 민족, 민족구성원의 죄과인 것이다. 그것은 한 민족에게 약소민족이라는 것보다 큰 죄과는 없기 때문이며, 잘못된 정부는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그에 따르는 형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⁴⁵⁾ 따라서 그가 보기에 현실에서 진정으로 강한 것은 도덕적, 윤리적 힘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이었다. 반면에 사회적, 민족적 진화의 과정에서 뒤떨어진 상태는 윤리적, 정신적 침체의 결과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크게 주목되는 것은 그가 약육강식의 사회진화론적 사회관에 압도당하고 좌절해버린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윤치호는 기독교적 개념인 청지기 윤리를 통해 이를 극복하고 있었다.⁴⁶⁾ 기독교적으로 볼 때, 영토와 자유, 독립은 하나님의 주신 선물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선물들의 유지는 그것들에 대한 청지기적 능력에 달려 있었다. 기독교의 청지기직은 창세기 창세전으로 올라가는데, 하나님은 태초에 땅과 모든 생물들과 자원들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돌보도록 위탁하셨다.

그러나 그는 정부와 사람들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정신적 물질적 자원들을 개발할 공동의 책임의식이 있다는 것을 기독교 이외의 종교에도 존재하는 것이었고, 이것이 유교 안에도 있다고 보았다. 한국의 유교가 이 점에서 신뢰를 주지 못한 것이었다. 그가 보기에 한국은 잠재력이 많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통치자들과 국민들이 그 사실을 소홀히 하였고, 유교의 교훈이 이런 상황을 고치는 데 무기력했다.⁴⁷⁾ 비록 유교 자체로 유

45) 『윤치호일기』, 1891년 5월 6일, 1893년 9월 24일.

46) 케네스 웰즈, *New God, New nation*, 김인수 역, 『새 하나님, 새민족』, 한국장로교출판사, 1997, 89쪽.

47) 『윤치호일기』, 1893년 12월 12일.

익한 것이 있지만, 유교가 강조하는 원칙들에 대한 의무가 도덕적인 정통성의 표준이 되어 하나의 윤리로 절대적 의무로까지 높아짐에 따라 모든 균형을 상실해버렸다고 보았던 것이다. 가장 큰 피해가 공공의 윤리였다.⁴⁸⁾ 이를테면 효에서 출발된 자신의 친척과 지기(知己)의 평안에만 관심을 갖는 이기적(利己的)인 관심 및 추구 등이 그것이었다. 시민윤리를 좌절시키는 요소가 바로 유교 핵심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윤치호가 강조했던 기독교의 청지기적 전망은 사회적 강조점을 갖고 있었다. 그것은 이른바 시민윤리와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었다. 시민윤리란 일반적으로 서구 프로테스탄티즘과 관련된 용어로, 기독교 신앙이 개개의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어야 한다는 윤리적 특성과 관계된 것이었다. 개인 윤리는 사회적 윤리의 기초로, 민족의 윤리·건강·생명력의 기본이 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윤치호는 그가 평생 쓴 『일기』 전체에서 ‘공적인 덕’, ‘공공정신’, ‘공적인 책임’ 등으로 사용했는데, 이런 개념들은 모두 ‘시민윤리’에 상응하는 것이었다. 이런 청지기 책임윤리의 확산 속에서 그는 시민윤리를 일으켜 민족공동체의 재건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한국의 유일한 구원이요, 희망이다”라고 보았던 것이다.⁴⁹⁾

이처럼 윤치호는 약육강식이란 사회진화론을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도 ‘기독교의 하나님’을 ‘숙명적인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가 이해한 하나님은 제국주의 침략을 합리화하며 현실을 ‘불가항력적인 운명’으로 그저 받아들일 것을 압박하는 존재가 아니었다. 제국주의 침략과 지배가 민족적 책임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결과임을 현실적으로 직시함과 동시에 민족적 책임감을 갖고 공동체를 다시 일으킬 책무가

48) 『윤치호일기』, 1902년 4월 6일.

49) 『윤치호일기』, 1893년 2월 19일, 4월 8일, 12월 19일.

있음을 끊임없이 자각시키는 하나님이었다. 때문에 그는 국제무대에서 강자를 자처하는 일본제국주의 앞에서 식민지 조선의 독립에 대한 ‘포기’를 진심으로 선언할 수 없었다. 절망적인 정치현실임을 인정하면서도 그는 기독교의 청지기 윤리를 기초로 좌절하지 않고 민족을 발전시킬 수 있는 희망을 계속 가질 수 있었다. 이것이 일제강점기동안 그가 국외로 망명하는 민족지도자들과 달리, 국내에 남아 사회의 정신적·윤리적·경제적 성장을 지향하게 된 직접적 배경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개종 이후에 계속적인 삶의 변화와 사회개혁이 진행되는 기독교의 방향처럼, 윤치호는 중국의 ‘노예’로, 일본의 ‘황민’으로 살던 자신의 민족이 언젠가 기독교 윤리 및 가치를 통해 새롭게 변화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다. 그렇게 변화된 사회는 단순히 기독교화된 사회가 아니라 기독교에 의해 감동과 훈련을 통해 인간다움과 책임감을 회복하고 이를 실천하는 기독교적 윤리사회 즉, 윤리적 공동체였다.

IV. 맺음말

이제까지 근대전환기 대표적인 기독교 지식인이었던 윤치호의 기독교 사회윤리사상을 살펴보았다.

19세기 말 근대전환기에 태어난 윤치호는 전통적 유학교육을 통해 유교적 지식인으로 성장하였다. 근대화의 사회적 흐름 속에서 그는 일본 유학을 통해 근대문명을 체험하였다. 감신정변의 좌절과 함께 그는 중국 상해로 망명을 떠나야 했다. 그곳에서 그는 개인윤리 차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였다. 이후 미국유학을 통해 그는 기독교 사회윤리를 수용하게 되었다. 그는 개혁운동의 방략을 기독교 사회윤리 차원에서 정립하였다. 이후 그는 제도개혁과 독립협회운동을 통해 사회적 실천을 전개하였다. 일

제의 침략에 맞서 한국인의 각성과 민족공동체의 실력양성을 위한 애국 계몽운동을 펼치기도 하였다. 일제 강점기 이래 국내에서 그는 기독교 사회윤리 차원에서 기독교청년운동, 여성운동, 언론운동, 교육운동 등을 통해 무너진 민족공동체를 다시 재건하고자 하였다.

윤치호는 근대전환기 유교적 세계관의 ‘단절’을 시도하였고, 새로운 대체자로 기독교 신앙을 주장하였다. 그는 삶의 거시적인 인식 틀 차원에서 윤리적 심각성을 강조하였다. 이를 중심으로 윤리 패러다임을 체계화시켰다. 또 그의 사회윤리관은 기독교의 실용성과 실천성에서 비롯되었다. 그런 점에서 그의 기독교신앙이 내세보다 현세에 집중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는 기독교 윤리를 현실적 실천윤리로 인식하였다. 이것이 사회개선 및 변혁에 사명의식을 가지는 공익적 사회윤리를 제공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는 약육강식의 사회진화론을 현실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이념적으로 기독교의 청지기 윤리를 통해 극복하였다. 이것은 그가 일본제국주의 압제 아래서 식민지 조선의 절망적이고 굴욕적인 정치현실 중에서도 끝까지 민족을 발전시킬 수 있는 희망을 가지는 원동력이 되었다.

참고문헌

- 강만길. 『한국근대사』. 창작과 비평사, 1984.
- 국사편찬위원회. 『윤치호 일기』 전11권(1973~1989). 『윤치호 서한집』, 1980.
- 김권정. 「1920~30년대 한국기독교인들의 민족운동 연구」. 숭실대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1.
- _____. 「한국사회와 기독교의 수용」. 기독교역사문화연구소 엮음. 『한국의 기독교』. 겹보기, 2001.
- 김명배. 「한말 기독교 사회, 민족운동의 신학적 배경과 그 성격에 관한 연구」. 『숭실사학』. 숭실사학회, 2008.
- 김상태 편역. 『윤치호 일기 1916~1943: 한 지식인의 내면세계를 통해 본 식민지시기』. 역사비평사, 2001.
- _____. 「좌옹 윤치호의 생애와 내면세계」. 『인물과 전기』. 한국인물전기학회 편. 한들출판사, 2002.
- 김영희. 『좌옹 윤치호 선생약전』. 기독교조선감리회총리원, 1934.
- 노재신. 「윤치호의 기독교 신앙과 현실 인식」. 목원대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민경배. 「초기 윤치호의 기독교신앙과 개회사상」. 『동방학지』 19집, 1978.
- 박정신. 「윤치호연구」. 『백산학보』 제23호. 백산학회, 1977.
- _____. 「기독교와 한국역사」. 『근대한국과 기독교』. 민영사, 1997.
- _____. 『국역 윤치호 일기2』.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3.
- 송병기. 『국역 윤치호 일기(개정판)1』.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1.
- 신용하. 「신민회의 창건과 국권회복운동」. 『한국학보』 제8집. 일지사, 1977.
- 안 신. 「좌옹 윤치호의 종교경험과 종교론」. 『한국기독교와 역사』 27. 한국기독교역사학회, 2007.
- 유영렬. 『개화기 윤치호 연구』. 한길사, 1985.
- 윤경남 역. 『국역 좌옹 윤치호 서한집』. 호산문화사, 1995.
- 윤경로. 「백옥인사건의 일연구」. 『한성사학』. 한성대 역사학회, 1983.
- 전택부. 『한국기독교청년회운동사』. 정음사, 1978.

윤치호. 『윤치호의 신앙고백』. 이덕주·조이제 엮음. 『한국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고백』, 1997.

이광린. 『유길준의 개회사상』. 『한국개회사상연구』. 일조각, 1981.

이덕주. 『한국그리스도인의 개종이야기』. 전망사, 1990.

케네스 웰즈. *New God, New nation*. 김인수 역. 『새 하나님, 새민족』. 한국장로교출판사, 1997.

허동현. 『1880년대 개회파 인사들의 사회진화론 수용양태 비교 연구』. 『사총』 55. 역사학연구회, 2002.

논문 투고일: 2011. 10. 31

심사 게재일: 2011. 11. 18

게재 확정일: 2011. 12. 17

19세기 말 근대전환기에 태어난 윤치호는 전통적 유학교육을 통해 유교적 지식인으로 성장하였다. 근대화의 사회적 흐름 속에서 그는 일본 유학을 통해 근대문명을 체험하였다. 갑신정변의 좌절과 함께 그는 중국 상해로 망명을 떠나야 했다. 그 곳에서 그는 개인윤리 차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였다. 이후 미국유학을 통해 그는 기독교 사회윤리를 수용하게 되었다. 그는 개혁운동의 방략을 기독교 사회윤리 차원에서 정립하였다. 이후 그는 제도개혁과 독립협회운동을 통해 사회적 실천을 전개하였다. 일제의 침략에 맞서 한국인의 각성과 민족공동체의 실력양성을 위한 애국계몽운동을 펼치기도 하였다. 일제 강점기 아래 국내에서 그는 기독교 사회윤리 차원에서 기독교청년운동, 여성운동, 언론운동, 교육운동 등을 통해 무너진 민족공동체를 다시 재건하고자 하였다.

윤치호는 근대전환기 유교적 세계관의 '단절'을 시도하였고, 새로운 대체자로 기독교 신앙을 주장하였다. 그는 삶의 인식 틀 차원에서 윤리적 심각성을 강조하였다. 이를 중심으로 윤리 패러다임을 체계화시켰다. 또 그의 사회윤리관은 기독교의 실용성과 실천성에서 비롯되었다. 그런 점에서 그의 기독교신앙이 내세보다 현세에 집중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는 기독교 윤리를 현실적 실천윤리로 인식하였다. 이것이 사회개선 및 변혁에 사명의식을 가지는 공익적 사회윤리를 제공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는 약육강식의 사회진화론을 현실적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을 '숙명적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기독교의 청지기 윤리를 통해 이를 극복하였다. 이것은 일본제국주의 압제 아래서 절망적인 정치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민족을 발전시킬 수 있는 희망을 가지는 원동력이 되었다.

주제어: 근대전환기, 사회윤리, 민족공동체, 사회진화론, 청지기 윤리
